

# 윤재옥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하자”

# 국힘, 총선 인재 ‘빅텐트’ 구축 시동

文 정부 관료·기초단체장 출신 5명 입당...양향자·금태섭 영입 ‘관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약자 지원·기후 변화 대응 등 협력 요청 노동·연금·교육개혁, 인구위기특별위·규제개혁 협의체 구성 제안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관련자 엄단은 물론, 다시는 정치 권력이 국가 통계에 손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가짜 인턴부 대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선거를 방해·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반 팬덤 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 결정까지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 정치 문화를 바꿔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 복원과 관련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정부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멈춰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

하고 있다”며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민생 8대 과제’로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 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꼽으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 전임 정부의 ‘보편복지’와 결이 다른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를 강조하며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노동·연금·교육개혁을 위한 여야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신설,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노선을 위한 ‘규제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하자”며 ‘국회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밖에 법안 발의 남발을 막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정보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준비 점검

내년 경찰 이관 앞두고 국정원·경찰청 보고 청구

국회 정보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내년 1월 1일 경찰에 넘어간다.

여야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관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양 기관은 대공수사권이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해왔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 결과 양 기관에서 만든 체크리스트로는 미흡한 점이 있어 경찰 체크리스트를 국정원과 크로스 체크해 국정감사 전 다시 한 번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권이 한 치의 모자람도 없이 내년부터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위에서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라며 “양 기관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은 양 기관이 힘겨루기나 줄다리기로 갈등·이견을 보이지 않도록 간담회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서로 점검해볼 것을 제안했고 양 기관도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또 “오늘 회의에서 북러 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으나 국정원 측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지 못했다”며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일 내년 총선을 겨냥해 ‘인재 영입’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

최근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 일부 참모의 총선 진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범야권 인물까지 영입하면서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빅텐트’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5명의 입당환영식에는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 출신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지낸 인사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청장,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광한 전 시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경찰청장 자치경찰청장, 제주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을 지낸 고기철 전 청장도 있다.

오는 21일 입당이 예정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역시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야권 인사로 분류돼 왔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영입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민주당과 차별화뿐 아니라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도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총선에서 ‘힘’으로 평가받는 지역구에 ‘새 인물’을 투입함으로써 수도권 위기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시장은 남양주, 김 전 청장은 수원, 고 전 제주도경찰청장은 제주에서 총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3곳 모두 국민의힘에는 힘으로 여겨진다.

조 의원은 전날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가 그간 외연 확대를 강조해온 만큼 범야권 인사와 2030 세대 표심을 노린 청년·여성 인재에 대한 영입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당인 ‘한국희망’ 양향자 공동대표와 ‘새로운선택’ 창당을 주도하는 금태섭 전 의원 영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대표는 양 공동대표와 면담에서 “같은 정치하는 입장에서 양향자 같은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우리 당에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다만, 금 전 의원 영입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금 전 의원 역시 전날 창당 발기인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인재 영입을 두고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의원의 경우 시대전환을 탈당해 민주당 위성정당에서 당선된 뒤 다시 제명을 통해 복당하는 ‘뽀수’를 통해 의원을 유지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중도충진에 어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총선을 대비한 새 인물 영입이 이어질수록 지역구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쟁 관계가 있어야 선거 운동을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라며 “보수만 가지고 총선을 이길 수 없다. 우리 당 야인 사람이 들어와야 확장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릴레이 양자 회담 강행군

뉴욕서 이틀째 일정 소화...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 방문 이틀째인 19일 (현지시간) 연세 양자 회담을 이어가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전날 9개국 정상과 대화한 윤 대통령은 이날 나 아도 단과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과 부부 동반 오찬 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강행군을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아쿠포아도 대통령과 만나 “가나에 한국형 전자 통관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보급했고, 교통, 재무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나는 2022~202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평화안보 분야에서도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이에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한국의 여러 기업이 자동차, 수산업 등의 분야에 진출해 가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가기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알베르 2세 모나코 대공과 만나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나코와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

안했다.

알베르 대공은 “다음 달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국립발레단이 한국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교류를 더 확대하자”고 회답했다.

윤 대통령은 잔드리카페사드 산토키 수리남 대통령과 만나 “수리남은 유엔군 일원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고마운 나라”라며 “수리남의 경제 사회 발전을 계속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국토 녹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수리남의 산림조사와 복원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산토키 대통령은 “수리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발전된 기술로 시너지를 이루면서 협력을 심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자국의 탄소배출권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초초코아네 사무엘 마테카네 레소토 총리를 만나 “레소토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에 기반한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농기계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